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해 관계가 성립되길...



이 언 종 종계 · 부화분과위원장

지난 2006년(병술년)을 되돌아보면 11월에 개최된 종계부화인대회가 능동적인 종계부화인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의미있는 한해를 매듭지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2001년 충남 덕산에서 진행된 대회 이후 5년여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범종계인들이 모여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종계부화인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자긍심을 갖게 만들어 종계인들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계기가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던가요? 우려했던 HPAI가 전북 익산과 김제에서 발병함에 따라 또 다시 긴장의 고비를 넘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득이나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종계업계에 다시 한번 어려움이 닥치면서 2007년 정해년(丁亥

年)은 우리 종계부화인들이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 당면현안을 풀어나가는 노력이 그 어느 해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입니다. 금년에 발병한 HPAI에 대한 소비홍보 대책은 지난 2003년 당시보단 다소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급격히 떨어진 닭고기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안전한 닭고기임을 확인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소비촉진에 모두가 동참하는 모습이 부족하였습니다. 즉, 범국민적인 소비홍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이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HPAI발병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던 소비가 협회 등 일부 언론들의 홍보활동으로 다소 증가되

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20~30%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먹어도 그만 안먹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우리 스스로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요원임을 자처하여 철저한 사양관리와 위생적인 닭고기를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소비의 식을 불러 일으켜야 하는 극한 상황까지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익산에서 살처분 된 종계는 전체적으로 20여만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경계지역에 있는 이동제한의 종란까지 합한다면 다소의 피해가 더 늘 수는 있지만 정확한 생산량을 파악치 못하고 또 다른 변수에 기대를 건다면 올해의 시장상황은 더욱 어려워지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2006년도 원종계가 약 12만수가 수입된다고 가정해 볼 때 아마도 600만수 이상의 종계가 생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07년도 생산동향을 보면 3/4분기 이후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 HPAI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생산량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인식하고 적정사육으로 정상적인 생산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진행중에 있는 종계 DB사업은 현재 정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 북 경기 예측으로 어느 정도 입증된 일이지만 좀더 보완해서 추진한다면 종계생산동향은 물론, 올해부터는 부화장생산동향까지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할 때 종계업체는 물론 육계업체에 아주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종계 DB의 성공을 위해서 종계부화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자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타 축종은 벌써 소비홍보사업을 시작해서 마스크에서 위력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는데 축산분야에서는 제일 먼저 임의자조금 사업을 시작했던 양계업체가 산고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태동한 의무자조금이 여지껏 출항은 못하고 부두에 정박 중이라니 이해 당사자간 더 많은 양보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양계인의 말에 의하면 '닭은 똥치는 동물이라 똥치지 못한다'는 말이 정말 그런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물론 우리 산업이 안고 있는 이래 집단간에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양계산업이 맞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 무엇보다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대화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결국 우리 산업은 더욱 더 황폐해 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10여년 동안 끌어온 백세미 문제를 제도권 앞으로 끌어 들여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하겠습니다.

HPAI가 말해주듯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산되는 백세미야 말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양계산업 전체의 인식이 더욱 더 확산되어 친환경적인 닭고기를 생산할 때 비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단백질 식품으로 대우를 받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목적이 손상 받지 않는 각자의 노력만이 최선의 답이라 생각하며 정해년 돼지해를 맞아 양계인들의 희망찬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양계**